백두산2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91(2002)년 5월 30일

통일전선탑에 깃든 숭고한 뜻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많은 분들이 평양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대동강의 쑥섬에 불멸의 기념비로 우뚝 솟아 있는 통일전선탑과 거기에 깃들어 있는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뜻이 전해

져 우리 민중들의 마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 김현규씨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시간에는 통일전선탑에 깃든 숭고한 뜻에 관해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그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발기와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역사적인 남북제정당 사회단체지도자연석회의가 성공리에 진행됐었는데요. 회의가 성공리에 진행된 해인 5월 2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석상에서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김구, 홍명희, 김규식 등 여러 인사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남북연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결의들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을 자상히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를 마치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로 어죽을 쑤어 참가자들에게 대접하도록 하시고 통일대업을 위해서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해서 축배도 권하셨습니다.

이날 이남대표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이념에 깊이 감복됐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고결한 인품과 덕망에 완전히 매혹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김일성주석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온 민족의 최고영도자로 우러러 경모하면서 그분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략에 공감과 지지찬동을 표시해 나섰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쑥섬협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에 대해 합의를 본 사실상의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였고 남북협상, 연공합작의 극치를 이루어 우리 나라의 통일전선역사에 빛나는 장을 장식한 역사적 회합이었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89년 10월에도 쑥섬사적지건설을 위해서 노고를 바치셨다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10월초 어느날이었는데요. 낮에 쑥섬혁명사적지와 유원지건설안을 봐주시면서 섬을 원상대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리켜주신 주석님께서는 그날 저녁 일군들을 또다시 집무실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을 보낸후 다시 생각해보았는데 그때 남조선 정객들과 협의회를 한 쑥섬에 7, 8명되는 사람들이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원두막이 하나 있었다고 그것을 원상대로 지어놓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원두막에 대해서 그리고 잊지 못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셨답니다. 주석님께서는 다락집을 만들기는 힘들지 않지만 후대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 가며 보존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우리 나라 역사에서 그처럼 상반되는 두 세력이 흉금을 터놓고 마음을 합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남북연석회의와 쑥섬협의회는 통일전선의 승리이며 연공합작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 훌륭한 모범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세상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따르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다락과 같은 물질적 흔적을 잘 남겨놓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쑥섬 혁명사적지건설을 발기하시고 섬을 원상대로 복구하시려고 그렇듯 심혈을 기울이시는 주석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마련하신 남북연석회의와 쑥섬협의회를 통일전선의 승리로, 연공합작의 귀감으로 보시며 그 훌륭한 모범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시려고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분의 뜻은 얼마나 숭고합니까.

다음날 아침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사적을 고증하시기 위해 몸소 쑥섬에 나오셨다더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그날은 강바람이 매우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주석님께서는 30대의 아득한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역사적인 협의회장소에 서늘한 그늘을 던져주던 그 인상깊은 강바다의 큰 버드나무와 원두막의 위치, 회의장소를 고증해주셨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자리와 그 높이를 정해주시고 탑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 하나하나 가리켜주셨다고 합니다.

계속하시어 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쑥섬의 통일전선탑을 세우되 그때 쑥섬에 함께 왔던 김책동무와 남조선 정객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기념비적인 것으로 되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주석님께서는 화제를 돌리시어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던 한 인사의 묘가 애국열사릉에 없는데 대해 심려하시면서 그를 애국열사로 내세워주고 그의 묘를 애국열사릉에 세워주도록 하시는데 관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셨다고 합니다.

사회자 :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자그마한 소행도 크게 여기시며 그것이 역사와 후대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처럼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정녕 그분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심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지니신 주석님의 그 크나큰 사랑이 있어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 있던 인사들도 애국열사로 불리워지며 영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이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당시 쑥섬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인물들을 고증해주시고 쑥섬을 혁명사적지로, 유원지로 꾸릴데 관한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뜻대로 쑥섬혁명사적지건설을 성공리에 추진시키시기 위해 기념비와 원두막, 나룻배도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친히 완성시켜주셨고 기념비에 새길 글발도 자자구구 검토해주시면서 건설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영도하셨다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쑥섬건설정형을 보고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기념비의 이름을 ≪통일전선탑≫이라고 명명해주시고 탑신에 새겨놓을 글자도 친필로 써보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번이나 쑥섬을 찾으시어 쑥섬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쑥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1991년 6월에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지도해주셨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바꾸게 될 쑥섬의 면모를 봐주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에 나오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천천히 탑주위를 돌아보시면서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단수에 맞게 56개의 화강석을 깎아서 단을 조립했다는 일군의 설명을 들으시고는 더없이 만족해하셨답니다. 이어 그분께서는 탑신의 뒷면에 새겨진 ≪한국≫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민족자주연맹, 근로인민당, 신진당, 사민당, 근로대중당, 민족한독당, 조선농민당 등 글발들을 한자한자 내려 읽으셨습니다.

사회자 : 탑신에 새겨진 56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은 정녕 천만마디의 글줄로도 대신할 수 없는 통일성업의 위대한 서사시였다고 생각돼네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탑신의 이랫면에는 쑥섬협의회에 참가했던 남북대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주석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라 읽으셨다고 합니다.

≪김책, 김구,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백남운, 엄항섭, 조완구...≫

삐걱거리는 노를 저으면서 쑥섬으로 향하던 잊지못할 그날의 그들을 그려보시는듯 주석님께서는 한동안 대표들의 이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단합과 통일전선의 기치아래 인생전환을 한 이남의 인사들은 통일애국열사들을 영생의 언덕의 세워주신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량없는 은덕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거죠.

사회자 : 그렇습니다. 진정 통일전선탑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공로를 후세에 기리 빛내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신 주석님의 자상함과 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탑이고 온 민족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올 것을 바라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통일유훈의 뜻이 어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통일전선탑에 깃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애국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분의 통일유훈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실현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3일~24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통일전선탑에 깃든 숭고한 뜻
- 태양의 품에 안겨 인생전환한 목사
-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 참다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태양의 품에 안겨 인생전환한 목사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평생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과 크나큰 친화력을 지니시고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어 민족자주위업의 길, 애국애족의 길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민족의 은혜로운 어버이셨습니다.

주석님의 태양의 품, 대해같은 품이 있어 반공에서 연공에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진정한 애국의 길, 민족대단합의 길을 걸은 인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태양의 품에 안겨 인생전환을 한 한 목사에 대한 얘기 윤정원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탄생 90돌을 뜻깊게 기념을 했는데요.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애하는 주석님에 대한 숭앙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대단합을 위해 과거경력이야 어떻든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 어떻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그 품에 안겨 진정한 애국의 삶을 누린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었던 김성남목사도 있어요.

평양태생인 김성남목사는 *****하고 교회 목사가 된 때로부터 한생의 대부분을

김성락목사와 접견하시는 김일성주석님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학계와 종교계에서 활동하면서 재미교포사회는 물론 많은 미국사회에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였어요.

보수적인 종교활동가로써 그의 반공이념과 숭미사대정신은 철저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숭미사대정신은 뿌리깊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인생말년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으로, 친미사대로부터 민족자주에로 사상전환, 인생전환을 하게 됐던 거죠.

주체70(1981)년 7월초였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김성남목사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됐답니다. 사실 그가 평양방문의 길에 나서게 된 건 이북의 통일방안을 자상히 알아보는 한편 인생말년에 고향산천을 찾아보려는데서 출발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는 이북의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겠으니 자기에 대해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었데요.

그러던 그를 온 민족, 전 세계가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해 마지않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으니까 그의 감격과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타향에서 그가 벌이고 있는 애국적 활동에 관해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다구요.

마디마디 말씀마다 숭고한 애국애족의 넋과 투철한 민족단합정신이 넘치고 자애로운 그 미소에 온 우주를 품어 안아주는 넓으신 도량과 덕망이 안겨와서 그는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답니다.

더욱이 오찬회에서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자기에게 식전기도부터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너무도 감격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찬 기도를 올렸답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서 목사는 경애하는 주석님이시야말로 겨레의 통일염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운명의 구원자이시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됐데요.

그래서 목사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발표한 출발성명에서 분열된 조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에 기초해서 통일돼야 한다는 확신에 찬 견해를 밝혔던 거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고 결심한 극적인 인생전환이었어요.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목사는 이처럼 숭미반공의 울타리를 벗어나 연공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생을 마친 후에도 애국적인 통일인사로 조국통일상 수상자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답니다.

김성남목사뿐이 아닌 수많은 해내외의 통일애국인사들이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인덕의 품을 찾아 연공연북의 길에 나섬으로써 값높은 생을 찾게 됐고 민족사의 한 페이지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됐던 거죠.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이 참다운 애국의 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투쟁에 과감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3일~24일

절세위인의 명언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명언에는 조국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보호자를 가질 수 있고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한없이 귀중하고 따뜻한 품을 어머니에 비겨 이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며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참된 삶의 품입니다.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며 그 속에서 더욱 풍만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은 사람들에게 생을 주고 키워주는 젖줄기이며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조국을 잃으면 누구나 망국노의 운명, 부모 잃은 고아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건 수십년 세월 강도일제에게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뼈에 사무치게 새기고 새긴 피의 교훈인 겁니다.

지난날 조국과 민족을 깊이 사랑하시고 빼앗긴 조국이 당하는 아픔을 그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웅지를 품으시고 장장 20여성상 설한풍이 휘쓰는 만주광야에서 풍찬노숙하시며 일제와 혈전을 벌이시어 마침내 조국광복을 이룩하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그대로 이으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북 민중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이북 땅위에 우리 조선민족이라면 그 누구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세계 으뜸가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 민중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펴나는 민중중심의 참세상을 그려 주셨습니다.

정녕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워 주시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이북은 우리 민중 모두가 안겨 살아야 할 진정한 어머니의 품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언의 참뜻을 깊이 새기고 이 땅위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신들의 열과 성을 다바쳐야 합니다.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북의 ≪아리랑≫공연이 세계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이 하나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출연자들의 모습. 관람한 세계인들의 일치한 목소리는 경이적인 일심단결입니다. 어떻게, 과연 어떻게 그들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걸까. 무엇이 그런 단결을 이루어내는 걸까.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유진명씨 모시고 듣기로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고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민중 자신에게 있어요. 민중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고 단결된 민중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죠.

민중의 단결의 위력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단결의 위력이고 하나의 중심에 결집된 조직적 단결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민중의 사상의지적, 조직적 결집은 민중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어요. 탁월한 수령만이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을 명시하고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으로부터 변혁운동을 시작하고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변혁운동을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수많은 정치가들과 변혁운동가들,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민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합시키는 위업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었어요. 지난 시기에는 민중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사상, 즉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숭고한 사

명으로 제시한 사상이론은 없었고 민중의 자주위업에 헌신하는 민중적 수령이 없었죠.

파쇼적인 옛 통치배들은 민중의 마음을 끌어 저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만적인 선전이라는 것을 내세웠고 어떤 통치배들은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의사를 강요했지만 민중의 마음을 끌 수 없었고 일치시킬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하면 지난 세기 진보적인 정치변혁운동가들도 민중의 단결에 대해 강조했지만 일심단결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민중을 역사의 주체, 변혁운동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객관적 요인에 의해 인간과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상, 민중을 수령을 한낱 탁월한 개인으로 보는 사상에서는 단결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민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지는 못했어요.

일심단결이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단결을 뜻하는데요.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단결문제가 지난 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에서 제기됐었습니다만 자체의 한계성으로 완벽한 사상의지적 단결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곧 계급적 해방으로 보고 경제적 해방안에 제 조건과 방도를 밝힌 철학이죠. 따라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확립후에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사회주의사회의 참다운 주체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주체로써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할 수 없었죠.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민중의 완벽한 일심단결을 실현하려면 민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과 방도를 밝힌 사상에 기초해야 하는데요. 그 사상은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밖에 없었죠.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해 비로소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민중의 일삼단결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에 기초한 단결에서는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단결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는데 미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수령을 탁월한 개인으로 보았고 따라서 수령의 유일사상체계확립문제, 수령에 대한 충성에 기초한 수령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죠. 물론 지난 시기에도 노동자계급의 수령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도덕의리, 수령에 대한 민중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중의 최고뇌수, 단결의 유일중심에 대한 충성의 의리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의리문제로 논의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기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조직결집이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완벽한 일삼단결로 될 수 없었어요. 그건 주체사상에 의해 명시된 주체의 수령관에 기초해서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된 혁명전우들에 의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유일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민중의 일심단결의 시원이 열리고 혁명전통이 이룩되게 된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때부터 일심단결을 변혁투쟁의 무기로 확고히 거머쥐셨어요. 그분께서는 일찍이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하신 일심단결의 전통을 이으시고 그것을 변혁운동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게 발전시키시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셨고 일심단결을 그 발전의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셨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는 일심단결의 완벽성과 공고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혁명철학으로 삼으시고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영도로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역사에서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를 실현하는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항일투쟁시기에 형성된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 광복후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해 당과 군대를 창건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해 전사회의 일심일체를 이룩하기 위한 경험을 계승하시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완벽하게 실현하셨죠.

그분께서는 변혁투쟁이 더욱 승화발전되는데 따라 조선노동당의 통일단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관한 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일심단결의 사상을 확고히 거머쥐시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가고 계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어 모든 당원들을 주체의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고 당활동과 당건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실현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 전일체, 사상적 전일체로써 일심단결된 노동자계급의 당의 최고전형을 창조하셨죠.

그분께서는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사회의 모든 지휘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 줄기차게 벌여나가도록 하시면서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사회구성원들도 수령과 조선노동당의 주위에 일심으로 단결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북민중은 수령, 당과 언제나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혼연일체를 이뤘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바로 여기에 이북의 막강한 힘의 원천이 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공헌이 있는 겁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일심단결의 정치철학을 깊이 연구터득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겨레를 일으켜세워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민중을 적극 분기시켜야 합니다.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5일~26일

≪아리랑≫의 한 장면

집단체조연습장면

참다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사회주의 정치방식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주의하에서의 정치방식인 참다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관해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씨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사회는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써 그 본성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방식이 창조돼야 하는데요. 선행한 노동자계급의 이론에서는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못했었죠. 그건 우선 정치가 경제에 의해 규정된다는 이론에 토대해서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서기만 하면 국가가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 문제는 제때에 해결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선행 노동자계급의 이론에서는 정치를 계급간의 관계, 계급투쟁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경제의 집중적 표현인 정치는 경제체제가 바뀌어 새로운 계급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새 계급에 의한 통치가 지어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부터 낡은 사회의 통치방식이 계급적 성격만 다를 뿐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보았으며 새로운 정치방식,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이고 민중적인 정치방식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건 또한 새형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사회주의정권의 본질을 올바로 규정하지 못하고 그걸 지배계급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권력기관으로만 이해했던 것과 관련됩니다. 이로부터 계급투쟁의 무기, 권력의 행사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만 주되는 관심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중이 정치의 주인이고 결정적 역할을 하며 정치는 민중을 위한 걸로 돼야 한다는 주체의 원리에 기초해서 정치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새로운 정치조직으로서의 사회주의정권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시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걸맞는 정치방식, 민중적 정치방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체의 정치철학에 의하면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걸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정치개념이 정립됨으로해서 정치를 계급지배의 수단으로만 보아오던 지난 시기의 이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지휘하는 기능, 수단으로 새롭게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권력기능으로서의 착취계급사회의 정치방식과 민중이 주인이 돼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정치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게 됐습니다.

정치에 관한 주체적 개념이 정립됨으로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립되게 됐는데요.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민중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되는 요인입니다.

사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사회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나라와 민중의 자주성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누구를 위한 정치가 실시되느냐에 의해 규정되는 겁니다.

정치는 또한 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며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치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주체적 이해에 토대해서 처음으로 민중의 자주성실현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명시되게 됐습니다.

구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붕괴교훈의 하나는 착취계급의 국가정권과 사회주의국가정권의 본질적 차이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낡은 사회의 정치방식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착취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정권의 본질적 차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그 계급적 성격의 차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적 차이의 전부인건 아닙니다. 계급적 성격의 차이만을 본질적 차이로 본 건 국가를 계급적 지배실현을 위한 독재무기로만 본 이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소수지배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착취사회의 국가정권에서는 권력기능이 주되는 표징, 주되는 기능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민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국가정권에서는 정권의 본연의 정치기능, 즉 사회에 대한 통일적 관리기능이 주되는 기능으로 되게 됩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사명을 지닌 새로운 국가정치 조직인 겁니다.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국가정권은 민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걸 기본기능으로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정치철학,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셔서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치방식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해명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일정한 사회적 집단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고 그걸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정권의 활동방식, 정치실현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민주주의를 논하는데서 가장 본질적인 건 누구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그 계급적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적대계급들로 분열된 착취계급사회에서 진정한 민중의 권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착취계급의 국가정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으며 착취계급의 국가정권에서 통치의 기본방식은 민중에 대한 독재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광범위한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국가정권활동의 기본방식, 정치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민중의 의사에 기초해서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세우는 기본방식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이북에서는 최고 주권기관이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민중 자신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그들에 의해 노선과 정책이 입안되고 책정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음으로 책정된 노선과 정책을 민중 자신이 자기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해 집행하게 하는 정치의 기본방식입니다.

이북에서는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해 책정된 노선과 정책이 곧 민중자신의 것으로 접수되며 민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 발양해 대중적 운동으로 그것이 집행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또한 민중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치방식입니다.

민중의 의사에 기초해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민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거해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건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표징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중을 위한 정치의 목적 자체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국가정권이 민중의 자유와 권리,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때 진정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북사회에서 국가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민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민중생활을 책임진 호주, 민중의 이익의 보호자로써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본성을 구현한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해서 동지적 사랑과 협조의 관계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됩니다.

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써 동지적으로 결집되어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를 이루고 그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이 추진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주성과 집단의 자주성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다같이 원만히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참다운 민주주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써 사회주의국가정치의 기본방식으로 돼야한다는 걸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걸 생활의 신조로 삼으시고 모든 간부들이 민중의 충복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민중을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속에 들어가셔서 민중의 요구와 의사를 귀담아 들으시고 민중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발양시켜 당과 국가의 노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민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부를 참답게 행사하고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 발양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정치의 기본방식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 이북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씨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며칠전에 ≪태양회≫모임에 갔었거든요. 새내기들이 많이 왔더라구요. 자기들도 비전향장기수들처럼 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정말 대견스럽고 장해보였어요.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 햇빛같이 빛나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 위대한 태양의 조국으로 갔죠.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하늘이 낸 복도 아니요 운명의 신이 준 행운도 아니었어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였죠. 정말 그분의 사랑은 그들의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죽음을 이기게 한 불사약이였습니다.

해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3일~24일